학술원상 수상자 기고

『김규식과 그의 시대』에 이르는 길



鄭秉峻* 教授 (이화여자대학교)

『김규식과 그의 시대』 1~3권(돌베개, 2025)은 한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인 우사 김규식(1881~1950)의 생애를 다룬 것이다. 이 책은 김규식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전이자, 김규식이 몸담았던 중국·미국·프랑스·러시아에서의 독립운동 및 관련 인물들을 추적한 것이다. 김규식을 따라가다 보니 김규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 그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들을 당면하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함께 담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이 책은 김규식 평전이자 한국 독립운동사라는 두 개의 축을 가지게 되었다.

이 책의 출발은 해방 직후 김규식·여운형이 중심이 된 좌우합작운동에 대한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석사과정에서 운좋게 주한미군정사령부의 비밀문서들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원문서가 주는 날것 그대로의 충격은 엄청났다. 이후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에 소장된 한국 현대사 관련 자료를 읽게 되었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되면서 연구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우남이승만연구』, 『한국전쟁』, 『독도 1947』,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 등이 미국측 비밀문서에 기초한 것이다. 재미 사학자 방선주박사가 주한미군정 군사실 문서철, 한국전쟁기 북한노획문서철 등을 발굴해 한국에 알린 덕분에 미국측 비밀문서들을 따라 읽을 수 있었던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해방 직후 김규식은 이승만, 김구와 함께 우익 3영수의 한 사람이자, 미군정 입법의원 의장이라는 정치적 위상을 점했다. 여운형과는 좌우합작운동을, 김구와는 남북협상을 함께 했으나 한국전쟁기 납북되어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그는 천부적 어학능력을 지닌 학자형 정치인, 미국 기독교의 세례를 받은 이성적 한국인, 이상주의적 중도노선의 대표자로 언급되었지만, 강력한 정치적 유산을 남기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규식에게는 당대 보통의 한국 정치인들과는 다른 비범한 면모가 있다고 느꼈고, 그 배경에는 그의 성장과 교육, 중국에서 보낸 독립운동 활동이 있기 때문이라 짐작했다. 2000년대 초반 김규식의 비서를 지낸 송남헌선생을 인터뷰했는데, 김규식에 대한 애정과 회한이 짙게 배어있었다.

김규식과 그의 시대 1: 고아 소년 "존"의 근대로의 여정 (1881~1918)

김규식 평전의 본격적인 출발은 부친 김용원(김지성)과 김규식의 가계를 정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김규식은 언더우드선교사의 양자, 유창한 영어 구사, 도미유학생 출신의 엘리트, 기독교 청년지도자 등 근대적 친미지식인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의 가계는

* 제71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인문학부문 수상자

고종 및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김용원은 도화서 화원 출신으로 수신사행에 동반하고, 수군우후(水軍虞候)로 동래 왜관을 감시했으며, 조사시찰단 단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근대 과학을 배웠고, 고종의 밀명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건너가 제1차 조러밀약의 주역을 담당했다. 국제적 파문이 커지자 김용원은 유배에 처해졌고, 어린 김규식은 언더우드고아원에 맡겨졌다. 김규식이 맞게 된 서양식 근대의 출발은 부친의 충군애국의 길로부터 파생된 것이었다. 이후 김규식은 의친왕(의화군)의 통역 겸 시종으로 도미유학길에 올랐고, 주미공사관의 서기생으로 임명되고, 1905년 포츠머드조약을 대비해 국왕의 밀사로 상해에 파견되었다. 김규식을 대표하는 외교독립노선의 뿌리에 고종의 국권수호외교가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고종과 김용원에서 김규식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끊이지 않는 사슬과 같은 관계, 전통적 근왕주의에서 근대 민족주의로의 전환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제1권의 부제는 「고아 소년 "존"의 근대로의 여정 (1881~1918)」이 되었다. 제1권은 김규식 개인의 삶을 복원하고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첫 번째 부인 조은애의 출자와 가계도는 이 책 이전에는 밝혀진 바 없을 정도이다. 제1권에서는 김규식이라는 개인이 어떻게 근대적 지식인으로 성장했고, 중국 망명 이후 독립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 했다.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발견한 김규식의 유년기 사진에서 출발해서, 김규식의 부친 김용원의 생애와 언더우드 고아원에서 김규식의 생활, 의화군과 연관된 도미유학의 과정, 로녹대학(Roanoke College)의 학창 생활, 귀국 후 사회활동과 결혼, 중국 망명 직후 동제사, 중국혁명 참가, 중국과 몽골에서의 활동과 대동단결선언 참가 등을 다루었다. 스미소니언박물관 아카이브에서 호랑이가죽 의자에 앉은 김규식의 사진을, 로녹대학에서 김규식의 학창시절 기록과 사진을,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호주에 인삼 팔러 간다며 발급받은 여권을 찾았고 「불령단관계 잡건(不逞團關係雜件)」 문서철에서 중국 내 행적을 찾았다. 그러나 기록은 파편적이었고, 연보의 매년을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컸다.

언더우드 고아원에서 생존과 영어를 배운 소년 김규식이 미국 유학 후 10년간의 국내 사회활동을 마치고, 중국으로 망명해 한국 독립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과정은 한국이 당면한 근대와 식민지의 비극적 상황, 그에 맞선 독립운동, 독립운동가의 입지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김규식은 일제의 억압적인 정치 상황으로부터, 신분제의 제약과 언더우드라는 생명의 은인이자 존재론적 규정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으며, 중국혁명과 한국 독립운동에 적극 동참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김규식과 그의 시대 2: 3·1운동의 빛, 한반도를 비추다 (1919~1921)

제2권은 김규식의 생애 중 가장 빛났던 파리강화회의, 3·1운동, 구미위원부 활동을 다루었다. 3년에 불과한 시기를 한 책으로 엮은 것은 그만큼 김규식의 일생을 결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김규식의 파리강화회의 행과 관련한 중요 챕터들은 그를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한 여운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운형이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친구인 찰스 크레인(Charles Crane)에게 신한청년당 명의로 한국 독립을 후원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실물 편지의 존재나 경과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2017년 컬럼비아대학 도서관 찰스 크레인가족 문서철에서 여운형이 1918년 11월 크레인에게 쓴 편지와 이에 동봉된 윌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100년 만에 발견했다.

감격과 흥분으로 글을 썼고, 이것이 제2권의 첫 번째 장이 되었다.

또한 미국에서 파리강화회의 미국대표단의 외교문서철과 의회도서관의 우드로 윌슨 문서철, 윌슨 참모들의 개인기록들을 통해 김규식이 영어에 능통해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 김규식이 중국 출발에 앞서 북경 주재 미국공사관에 자신이 파리에 가서 공보국을 설립하고 한국 독립의 정당성과 일본 통치의 가혹성·부당함을 선전할 계획을 사전에 통보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이 시기 여운형과 김규식 사이에는 친밀감보다는 이물감이 상당했는데, 김규식은 여운형의 청원서를 품고 다녔지만, 그 문서에 여운형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김규식은 신규식과 함께 파리강화회의 행을 논의했고, 미주의 안창호·박용만에게 편지를 보내 해외한족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며, 신규식과 공동명의로 파리에서 윌슨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알려진 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많았다. 평생의 동지로 알려진 두 사람 사이에 복류(伏流)하고 있던 이물감은 여운형·신한청년당이라는 새로운 신흥청년세력과 김규식·신규식·동제사라는 기성의 독립운동세력 간의 간극이었다. 3·1운동이 시작되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독립운동의 대폭발 속에 양자의 차이나 간극은 봄볕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 3·1운동 전후 김규식-여운형-신한청년당-동제사-파리강화회의가 맞물린 복잡한 내막은 이 책에서 처음 그 전모가 규명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모든 일이 3·1운동이 폭발하기 이전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다. 김규식과 여운형은 파리강화회의라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온다는 점을 절감했고, 전력을 기울여 시대의 부름에 호응했다. 무명의 청년에 다름없던 두 사람은 국내외가 호응한 3·1운동이 대폭발하자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역사는 시대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자에게 그에 합당하는 명성과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제2권의 부제는 「3·1운동의 빛, 한반도를 비추다(1919~1921)」인데 여운형-크레인 면담의 결과 신한청년당이 결성되고 국외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 파견을 시도하고, 이런 소식들이 동경유학생들과 국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과정, 파리강화회의로 가기 전, 가는 도중 김규식의 활동, 국내외에 파견된 신한청년당 밀사들의 활약, 파리강화회의에서 김규식의 1인 활동, 구미위원부 위원장으로서의 고경(苦境), 상해로의 험난한 귀경길 등을 다루었다.

제2권에 활용한 자료들도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 파리로 향하던 김규식은 배 위에서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청원서 초안을 써 부인 김순애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는 실론 주재 영국 우편국의 검열망에 걸렸다. 편지 원본을 찾아 영국 국립문서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를 찾았고, 여기서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 영국대표단에게 보낸 다양한 비망록과 편지들을 발견했다. 미국과 영국의 자료들을 종합하자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다양한 청원서, 비망록, 편지들, 대표단과의 접촉 경과가 밝혀졌다. 가장 놀랐던 일은 모든 문서 작업, 외교적 접촉 시도, 언론 홍보 및 선전활동을 김규식 혼자서 처리했다는 점이었다. 이관용, 여운홍, 조소앙 등 조력자가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다. 김규식은 3·1운동기 한국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파리강화회의의 유일한 한국 대표였고, 신한청년당 대표에서 출발해 대한인국민회, 나아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식 대표로 호명되었다. 김규식을 중심으로 파리강화회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로서 행복하고 자긍심이 넘치는 일이었지만, 마땅히 연구되고 정리되었어야 할 중요 주제가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였다는 점은 마음을 무겁게 했다. 미 의회도서관 태스커 블리스(Tasker Bliss) 문서철과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김규식의 조그만 명함을 어루만지며 그가 느꼈던 외로운

외교대표로서의 무게와 압박감에 격동과 비애의 감정이 교차했다.

김규식은 미국으로 건너가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았지만, 고군분투하고 노심초사했던 결과 뇌종양 수술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1920년 김규식이 구미위원부 위원장이자 파리강화회의 한국 대표라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혹은 워싱턴 월터 리드병원의 첨단 의료진을 만나지 못했다면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제연맹 외교를 기대했던 김규식을 기다리던 것은 구미위원부 공채표 판매 세일즈맨 역할이었고, 결국 김규식은 상해로 귀환을 결정했다.

하와이에서 상해로 가는 배편을 물색하던 김규식과 이승만은 박용만이 미군 수송선 토머스호를 타고 시베리아로 건너갔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승만은 수송선 탑승이 가능한지 미군에 문의했으나 거절당했고, 중국으로 향하는 화물선에 몸을 숨겨 밀항했다. 이 배에는 중국 고향 땅에 묻히길 희망하는 중국인들의 관이 실려있었는데, 이승만은 사전공작을 통해 여기에 편승한 것이었다. 덕분에 이승만은 관에 숨어서 상해로 향했다는 전설적 신화를 얻게 되었다. 반면 김규식은 곧바로 토머스호에 밀항을 시도했다가 배가 항구를 벗어나기 전에 발각되어 하선당했다. 이때 김규식이 소지하고 있던 중요 문서들이 미 정보당국에 압수되어 촬영되었다. 박용만, 이승만, 김규식의 처신과 상황판단, 임기응변 등이 잘 드러났다. 고지식한 김규식의 면모 덕분에 우리는 압수된 중요 문서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김규식은 호주를 경유해 상해로 돌아갔는데, 파리에서 만났던 호주 수상 휴즈(William Hughes)와 재회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호주에서는 해당 문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1919년 2월 상해를 출발한 김규식은 인도양과 수에즈운하를 거쳐 파리로 갔고, 다시 대서양을 횡단해 미국으로 향한 후 미 전역을 2차례 순방했고, 뇌수술이라는 죽음의 고비를 거쳐, 하와이에서 호주를 거쳐 1921년 1월 다시 상해로 귀환했다.

김규식과 그의 시대 3: 열정과 냉정 사이, 중국에서의 독립운동(1922~1945)

제2권의 주요 내용들을 완성한 후 23년간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시기를 다뤄야 했다. 앞서의 서술 밀도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중국 활동을 구성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다행히 이 시기와 관련해서는 뛰어난 선행연구들이 존재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간행위원회에 말석으로 참여한 덕분에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개괄적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

제3권의 부제는 「열정과 냉정 사이, 중국에서의 독립운동(1922~1945)」인데,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1921~1922), 국민대표회의(1923), 교육자(1923~1932), 도미외교(1933), 임시정부·민족혁명당 참여와 탈퇴, 사천대학 교수 시절(1933~1942), 중경 임시정부 활동(1943~1945), 해방과 귀국 등을 다루었다.

선행연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 국민대표회의였는데, 구소련 몰락 이후 공개된 코민테른 비밀자료들을 활용한 것들이었다. 그 이전의 연구가 대회 참가자들의 회고, 일본 외무성·경찰의 정보보고 등에 의지했다면 모스크바의 자료들은 러시아와 한국인 주체들의 입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김규식은 1919~1920년 친미·기독교·서구 지향의 대표주자였는데, 1921~1923년 극동민족대회, 국민대표회의 등 러시아와 관련된 외교활동에 적극 참가했다. 그와 함께 외교독립노선을 주도했던 여운형, 현순, 최창식 등도 모스크바로 급선회했다. 파리강화회의에서의 낙담

과 식민지 민족해방을 돕겠다는 모스크바의 선언과 자금지원이 상호작용을 벌인 결과였다. 상해는 1919년 독립의 에너지로 가득찼다면, 1921년 혁명의 중심지로 급변했다.

러시아 문서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극동민족대회 이후 레닌 자금을 둘러싼 한국 독립운동진영의 각축전이 드러났다. 이동휘 중심의 상해파 고려공산당, 김규식을 대표로 한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이희경·안공근이 대표하는 임시정부의 3각 충돌이 벌어졌고, 러시아 자금은 한국의 혁명운동과 반일운동을 고무하기보다는 독립운동 진영 내부의 갈등을 촉발하는 원천이 되었다. 고비사막을 횡단하고 기차, 자동차, 쌍두마차, 썰매를 활용해 울란바타르를 거쳐 이르쿠츠크에 이르는 여정은 김규식이 중국 망명 이후 외국회사 상사원으로 주재하며 닦아놓았던 인맥과 통로를 활용했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는 파리강화회의·워싱턴군축회의를 통한 외교 시도가 실패하자, 상해에서 외교를 중심으로 임시정부 형태로 독립운동을 추구했던 외교독립노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결과 소집되었다. 임시정부의 방향을 둘러싸고 새로운 조직을 창출하자는 창조파, 임시정부를 유지하지만 지도부를 개편하자는 개조파, 그대로 유지하자는 유지파가 격돌했다. 한국의 반일적 역량을 총집결해 통일적 혁명정당을 창출하려는 레닌 자금이 이 회의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미 3파로 분열된 상태에서 건설적이고 통일적 결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임시정부의 주역이었던 안창호, 이동휘, 여운형, 김규식 등이 모두 임시정부를 떠났고, 회의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때 창조파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국민위원회라는 정부를 선포했는데, 김규식이 여기에 동참했다. 국민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던 김규식이 이런 소수의 정파적 움직임에 동참한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백위파와 서구 열강의 반혁명 공세를 저지하고 러시아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한다는 레닌의 대의는 그의 죽음과 함께 종말을 고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민위원회는 즉각 추방되었고, 그 활동은 문건으로만 남았다. 김규식에게 1919~1920년은 파리강화회의를 중심으로 한 외교 독립운동이었다면 1921~1923년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외교 독립운동이었다.

파리, 워싱턴,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이 종료되자 김규식은 교육자로 돌아갔다. 중국의 다양한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중국·미국으로 유학하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예비학습을 제공했다. 중국 시절 김규식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단호히 후퇴하곤 했는데, 도미유학생 출신으로 탁월한 어학능력을 가진 영어 교사라는 퇴로가 존재했다. 긴 중국 망명생활 동안 그의 활동과 가족·생계를 건사할 수 있게 해준 수단이자 그의 진퇴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 배경이었다. 또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는 점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의 차별점이었다.

김규식은 1933년 미국을 다시 방문했다. 김규식은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중한민중대동맹의 대표로 도미했는데, 가장 큰 목적은 재미 화교들을 조직화해 후원을 얻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규식은 재미 한인들이 기대했던 임시정부의 대표가 아니었으며, 대한독립당이라는 후원조직을 만들어내는 데 그쳐야 했다. 김규식은 하와이에서 3·1운동기부터 알고 있던 이용직과 한길수를 만나 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논의했다. 한길수는 이를 계기로 중한민중대동맹 미주 대표로 자임했고, 일본군의 진주만 습격을 예언했다고 자부하며 태평양전쟁기 미국 언론의 총아가 되었다. 재미한인사회의 문제적 인물 한길수의 출세기가 여기로부터 비롯되었다.

1933~1935년간 김규식은 임시정부와 민족혁명당

에 합류했다가 탈퇴했다. 1930년대 중국 국민당 정부는 윤봉길 의거 이후 한국 독립운동진영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이를 둘러싸고 임시정부와 민족혁명당이 양립하게 되었다. 김규식은 민족유일당 운동을 계승한 민족혁명당에 참가했지만, 곧바로 사직했다. 이청천, 조소앙, 유동열 등도 민족혁명당에 가담했다 탈퇴했는데, 이러한 통일과 분열의 반복은 사상·노선의 대립보다는 세대 간의 차이와 인간적 관계의 충돌에 따른 것이었다. 김규식은 이후 사천대학 영문학 교수(1935~1942)를 지내며, 저술활동을 벌였다.

이 시기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세력은 한국독립당과 민족혁명당으로 양분되어 분립과 통합을 거듭했다. 선행 연구들은 이 시기를 김구·한독당·임정 중심, 김원봉·민혁당·조선의용대 중심, 연안 독립동맹·조선의용군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책에서는 이들의 연합과 갈등, 중국 국민당과의 관계, 세계정세와의 연동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중국 정부로부터 발원한 정치적, 군사적, 재정적 후원이 한국 독립운동과 카이로회담에 미친 영향 등을 다루었다.

1943년 임시정부로 복귀한 김규식은 부주석이자 민족혁명당 주석의 위상을 점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활동의 폭은 크지 않았다. 해방 후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을 서두르는 시점에 그는 『양자유경』이라는 영시집을 타이핑하고 있었다. 현실 정치에서 큰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던 중경시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귀국한 김규식은 임시정부의 주역으로 중도우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좌파와도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

제3권의 부록으로 김규식평전을 쓰며 자료를 발굴하게 된 사정을 기록한 「남은 말: 김규식 자료 추적기」를 덧붙였다. 선행 연구자들의 개척이 있어서 그 발자국을 따라 이 책에 이른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해방 후 김규식의 활동을 개관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장군의 개인 정치고문이었던 버치(Leonard Bertsch) 중위의 문서철에 등장하는 1946~1947년간 김규식의 면모를 스케치했다. 아직 1945~1950년간 김규식의 국내 활동은 미완이다.

연구의 초입에 있었던 1987년 미국·영국·일본에서의 문서관 연구는 꿈과 같은 일이었다. 이제 시대가 몇 차례 변하고 한국 사회는 성장을 거듭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해외 문서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선학들의 연구를 징검다리 삼아, 해외 문서관의 원문서를 탐구하며, 여기에 이르렀다. 되돌아 보면 좋은 운과 좋은 시대를 만난 덕분이고,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선후배들의 격려와 비판에 의지한 때문이었다. 바로 보고 힘써 나아갈 뿐이다.